

알코올리즘 환자들의 Alexithymia에 대한 연구

이남진* · 정애자* · 황익근*

A Clinical Study on Alexithymia in Alcoholism

Nam-Jin Lee, M.D.,* Ae-Ja Jung, Ph.D.,* Ik-Keun Hwang, M.D.*

국문초록

감정표현불능증은 감정과 공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기능의 특정 장애를 의미한다. 이는 초기에 정신신체질환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표현불능증적 특성은 내과적 그리고 정신과적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서 폭 넓게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는 Scored Archetypal 9 Test(SAT9)과 한국판 토론토 감정표현불능증 척도-20(TAS-20K)를 사용하여 알코올리즘 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20명의 알코올리즘 환자와 24명의 정상대조군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SAT9과 TAS-20K에서 알코올리즘 환자군은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좀 더 alexithymic하였다.
- 2) 두 군간 성별사이의 감정표현불능증 척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 두 군간 나이나 교육정도과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은 없었다.
- 4) SAT9과 TAS-20K은 환자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중심 단어 : 감정표현불능증 · 알코올리즘 · SAT9 · TAS-20K.

서 론

감정표현불능증(Alexithymia)은 개인이 경험한 감정이나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인지-정동장애(cognitive-affective disturbance)를 나타내는 용어로 Sifneos에 의해 1972년 처음 소개되었다¹⁾.

Alexithymia는 질병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상가들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 도출된 특수한 형태의 정신구조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임상적 난제로 되어있

던 정신신체장애 환자의 정신치료와 관련하여 이론적 공백의 틈을 메꾸어 줄 모델의 하나로 받아들여져 왔다. 기관지 천식이나 위궤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이들 환자들에게서 정서적 단절, 공감능력의 결핍 및 상징성의 결여 등의 특징이 빈번히 보인다는 보고가 이전부터 있었고²⁾, 따라서 이 개념은 정신분석에서 정서적 표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적 개념이 되었다³⁾.

이러한 alexithymia는 류마치스 관절염⁴⁾, 염증성 대장질환⁵⁾, 천식^{6,7)} 등의 고전적 정신신체질환 환자에서 정상인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체화장애⁸⁾, 심인성 동통장애^{9,10)}, 물질남용장애¹¹⁾,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¹²⁾, 섭식장애¹³⁾등에서도 보고 되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Korea

우리나라에서는 오홍근 등¹⁴⁾이 처음으로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Schalling-Sifneos Personality Scale¹⁵⁾을 소개하고 있으나 변별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일성과 황익근¹⁶⁾은 로르샤하 검사에서 시도하였으나 역시 환자군을 변별해 주지는 못하였다. 고경봉¹⁷⁾은 Alexithymia Provoked Response Questionnaire를 소개하였지만 환자군을 변별하는데에는 역시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양현 등¹⁸⁾은 한국판 TAS-20K를 소개하면서 척도개발과 타당성을 발표하였으나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Toronto Alexithymia Scale(이하 TAS)은 당시 alexithymia의 몇몇 측정도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신뢰도와 타당도의 저하요인을 극소화하고 alexithymia 개념구조에 충실한 객관적 평가방법을 제시한다는 구상으로 캐나다 Toronto 대학의 Taylor와 그 동료들에 의해 1985년에 개발된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현재까지 측정도구로서 타당도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척도이다. 처음 개발 당시에는 26문항의 항목이었으나 중복된 의미가 크거나 요인간 상관성이 낮은 문항을 없애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23문항의 TAS 개정판(TAS-R)이 1992년에 보고되었고, 그 중 공상에 관련된 문항들을 삭제시킨 20문항의 단축형 TAS(TAS-20)이 1994년 개발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1993년 한진희¹⁹⁾는 이 개념의 소개와 많은 검사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기보고형이 아니면서 투사적 기법인 객관적으로 채점을 시도한 원형적인 검사(Objectively Scored Archetypal Test, 이하 SAT 9)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Durand²⁰⁾의 이론을 바탕으로 Durand가 평가지침을 제시하여 Desmer-Desrosier 등^{21,22)}과 Cohen 등^{23,24)}이 개발한 것이다.

알코올리즘이 alexithymia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²⁵⁾는 외국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임상연구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alexithymia를 정량화시킬 수 있는 도구중의 하나인 Durand의 SAT9과 표준화된 한국판 20항목 Toronto Alexithymia Scale(TAS-20K)를 이용하여 알코올리즘 환자와 정상대조군에서의 두 개 척도의 alexithymia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이 질환과 alexithymia와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환자군은 1997년 3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던 환자들로 DSM-IV(APA 1994) 진단기준에 의해 알코올 의존과 알코올 남용으로 진단을 받았던 알코올리즘 환자 가운데 본 검사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가능하였던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최종적으로 자료분석이 가능한 환자는 20명(남 : 12명, 여 : 8명)이었다.

대조군은 전북대학교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와 병동관리인들 중 과거에 정신장애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남녀 24명(남 : 13명, 여 : 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방법

SAT9은 피험자들에게 60분동안 아홉 개의 상징적 표상(폭포, 물, 무서운 괴물, 불, 은신처, 칼, 동물, 사람, 그리고 동그란 모양을 한 돌아가거나 굴러가는 물체)을 모두 포함하여 연관시킨 그림을 그리게 하고 거기에 포함된 설문에 답을 하고 피험자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는 짤막한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하는 일종의 투사적 방법이다. 피험자는 상기 9가지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린 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며 부가적인 질문을 받게 되어있다. 임상적 평가는 이들 상징적 표상의 표현능력과 전체적 의미의 유기적 통합정도를 질적 및 양적 측면에서 모두 평가한다. SAT9의 평가항목은 144개에 달하며 각 항목은 평가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0.5점에서 4점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최고 점수는 209점까지 가능하며 총점 또는 평균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만일 상상력이 억제되어 있거나 결핍된 상태라면 상징적인 표상들을 적절히 구사하거나 이들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통합시키는데 실패하여 총점수는 낮아진다.

TAS-20K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4, 5, 10, 18, 19항목은 부정형 항목이다. 각 문항은 심한 정도에 의하여 1점에서 5점으로 하였다. 이 척도는 이양현 등(1996)의 논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상기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에서 투사적 방법인 SAT 9은 점수가 낮을수록, 객관적 방법인 TAS-20K는 점수가 높을수록 alexithymia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의 분석은 전산화된 통계 프로그램인 SPSS 6.12를 이용하여 알코올리듬군과 정상대조군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고, alexithymia 점수와 임상 변인과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결 과

환자군은 20명으로 평균연령은 약 32세(29~64세)였으며 남자는 12명, 여자는 8명이었다. 환자군의 평균학력은 약 13년이였다. 정상대조군은 24명으로 평균연령은 약 32세(25~42세)였으며 남자는 13명, 여자는 11명이었고 평균학력은 약 12년이였다. 두 군의 성별분포와 나이, 그리고 학력에서 통계학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Alexithymia 점수는 정상대조군과 비교시 환자군에서의 SAT9은 37.60 ± 13.60 , TAS-20K는 65.50 ± 7.81 이었고, 정상대조군에서는 SAT9은 61.67 ± 13.74 , TAS-20K는 41.83 ± 7.15 으로 환자군에서 두 검사 모두 유의하게 alexithymic한 반응을 보였다($p < 0.01$)(Table 2).

환자군에서 성별에 따라서 alexithymia 점수상 차이가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별에 따른 alexithymia 척도를 비교하여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상대조군 역시 성별에 따른 alexithymia 점수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이 및 학력과 alexithymia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군에서 나이와 학력에 따른 alexithymia의 점수를 상관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이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알코올리듬군에서 SAT9과 TAS-20K는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r = -0.529$, $p < 0.05$)(Table 3). 그러나 대조군에서는 이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토 론

임상적으로 볼 때 alexithymia를 보이는 사람들은 신체증상의 호소가 많고, 공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대인관계에서 의존성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¹⁵⁾ 정신치료시 치료자로 하여금 지루한 느낌을 갖도록 하는 등의 역전이를 유발한다²⁶⁾. Alex-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lcoholism and control group

	Alcoholism	Control group	p value
Sex(M/F)	12 / 8	13 / 11	0.829
Age(yr)	32.25 ± 2.40	32.00 ± 7.05	0.881
Education(yr)	12.60 ± 1.60	12.25 ± 1.26	0.422

Values are mean \pm SD

Table 2. Comparison of alexithymia scores between alcoholism and normal control group

	Alcoholism (N=20)	Control group (N=24)	p value
SAT9	37.60 ± 13.52	61.67 ± 13.74	0.0001**
TAS-20K	65.50 ± 7.81	41.83 ± 7.15	0.0001**

** $p < .01$
Values are mean \pm SD

Table 3. Correlation of alexithymic measures between SAT9 and TAS-20K in alcoholism and control group

	Correlation coefficient	p value
Alcoholism	-0.529	0.016
Control group	-0.262	0.216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calculated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ithymia는 정신신체장애환자에서 주로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약물남용환자나 그 밖의 심한 외상을 경험한 환자에서도 확인되었다²⁷⁾.

많은 연구에서 알코올리듬 환자들이 alexithymic하다는 보고가 있는데^{25,28)} Kauhanen 등²⁹⁾에 의하면 좀더 심하게 alexithymia를 보일수록 알코올리듬 환자의 음주량이 더 많다고 한다.

Fukunishi 등³⁰⁾은 알코올리듬 환자의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우울증과 alexithymia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가족 구성원들에서 47.9%가 alexithymic한 경향을 보였고 6.3%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며, alexithymia와 우울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동일 논문에서 이들은 또한 알코올리듬 환자의 가족 구성원들에서 표현력과 갈등이 대조군에서 보다 적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갈등을 억제하고, 무의식적으로 부정(denial)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그 결과 이차적으로 alexithymic한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Seltzer³¹⁾에 의하면 알코올 의존 환자들의 경우 alexithymia의 유병율이 높고, 또 이들은 내적 신호를 지각하는데 결함이 있으며, 스트레스하에서 좀더 오랫동안

안 흥분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her와 Levenson³²⁾은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흥분된 자율신경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Haviland 등³³⁾에 의하면 물질남용장애 환자의 우울증과 alexithymia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우울증과 alexithymia가 정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alexithymia가 우울증의 한 소인이거나 alexithymia가 우울증에 대한 특징적인 방어인 것 같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리듬 환자군에서 정상대조군과 달리 SAT9 점수와 TAS-20K 검사에서 모두 유의하게 alexithymic한 양상을 보였다($p < .01$). 이와 같은 결과는 알코올리듬 환자들에서 alexithymia의 유병율이 높다는 Hendryx 등²⁸⁾과 Seltzer의 보고³¹⁾와 일치하며, 이는 이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갈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그 결과 누적된 감정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율신경의 기능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한다는 Sher와 Levenson³³⁾의 가설을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reiger와 Johns³⁴⁾는 만성 폐질환 환자와 alexithymia에 대한 연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alexithymic하였으나 교육정도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Borens 등³⁵⁾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직업수준이 낮을수록 더욱 alexithymic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Pierloot과 Vinck³⁶⁾는 alexithymia의 정도와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여서 전자와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두 군 모두 성별간 alexithymia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으며, 나이 및 교육수준과도 상관성이 없었는데, 만약 성별, 나이 또는 교육정도에 관계없이 alexithymia의 정도를 변별할 수 있다면 앞으로 연구에서 본 척도들의 유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이나, 피험자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 시키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대조군에서 SAT9과 TAS-20K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군에서는 SAT9과 TAS-20K가 서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이는 alexithymia가 심할수록 SAT9은 점수가 낮고, TAS-20K는 점수가 높아서 두 점수간의 차이가 더 큰 폭으로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두 척도 모두 alexithymia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Ziolkowski 등³⁷⁾은 남성 알코올리듬 환자에서 1년 이하 지속적인 금주를 하였던 환자군이 1년 이상 금주를 하였던 환자들보다 좀 더 alexithymic하다고 하였다. 또한 Haviland 등³⁸⁾은 알코올리듬 입원환자에서 금주를 하였던 90명의 남자환자의 우울증상과 alexithymia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점수가 높을수록 좀더 alexithymic하다는 결과를 얻어서, alexithymia가 알코올리듬 환자 자신의 우울한 감정을 부정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인다고 하였다. Taylor 등³⁹⁾은 최근에 물질남용을 중단하였던 물질남용 남자환자에서 alexithymia의 유병율이 50%정도 되며, 이들 alexithymic한 환자들은 자아강도가 낮고 억압적인 방어행동을 적게 사용하며, 신체적 증상호소가 많다고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주정도와 alexithymia와의 관계나 금주기간과 alexithymia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울증과 alexithymia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의 제한점은 우선 표본수가 적다는 점이다. 환자군의 경우 검사를 시행한 대상은 50명이었으나 투사검사인 SAT9에서 결과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 20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SAT9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표준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TAS-20K를 같이 시행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투사적 검사인 SAT9(Objectively Scored Archetypal 9 Test)과 객관적 검사인 TAS-20K(Toronto Alexithymia Scale-20 Korea version)를 이용하여 감정표현불능증과 알코올리듬과의 관계를 규명할 목적으로 알코올리듬 환자 20명과 정상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알코올리듬 환자군이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감정표현불능증적 경향을 보였다.
- 2) 감정표현불능증적 경향은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환자군에서 감정표현불능증의 정도는 나이 및 교육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이런 소견은 정상대조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환자군의 경우 SAT9과 TAS-20K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REFERENCES

- 1) Sifneos PE(1972) :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2) Marty P, de M'Uzan M(1963) : La Pensee operate. Rev Fr Psychoanal 27 : 1345-1356
- 3) Nemiah JC, Freyberger H, Sifneos PE(1976) : Alexithymia : A view of psychosomatic process. Modern Trend in Psychosomatic Medicine 3 : 430-439
- 4) Fernandez, Sriram TG, Rafkumar S, Chandrasekar AN(1989) : Alexithymia characteristics in rheumatoid arthritis. Psychother Psychosom 51 : 45-50
- 5) Porcelli P, Zaka S, Leoci C, Centonze S, Tayler GJ(1995) : Alexithymia in inflammatory bowel disease. Psychother Psychosom 64 : 49-53
- 6) Robert JF, Deborah MH, Robert AK(1982) : Alexithymic asthmatics : Age and alexithymia across the life span. Psychother Psychosom 37 : 185-188
- 7) 오상미, 이흥범, 이용철, 이양근, 정애자(1998) : 천식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 천식 및 알레르기 18(3) : 434-440
- 8) Bach M, Bach D(1996) : Alexithymia in somatoform disorder and somatic disease : A comparative study. Psychother Psychosom 65 : 150-152
- 9) Mendelson G(1982) : Alexithymia and chronic pain : prevalence, correlates and treatment results. Psychother Psychosom 37 : 154-164
- 10) Richard FH, Catchlove MB, Karen R, Choen BA(1985) : Incidence and implications of alexithymia in chronic pain patients. J Nerv Ment Dis 173 : 246-248
- 11) Krystal H, Raskin H(1970) : Drug Dependence.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ll. Cited from Taylor GY(1984) : Alexithymia : Concept,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treatment. Am J Psychiatry 141 : 725-732
- 12) Krystal JH, Giller EL, Cicchetti DV(1986) : Assessment of alexithymia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omatic illness : introduction of reliable measure. Psychosom Med 48 : 84-94
- 13) Schmidt U, Jiwany A, Treasure J(1993) : A controlled study of alexithymia in eating disorder. Compr Psychiatry 34 : 54-58
- 14) 오홍근, 이 식, 김현우(1986) : 정신과 자문환자의 Alexithymia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7 : 525-534
- 15) Apfel RJ, Sifneos PE(1979) : Alexithymia : Concept and measurement. Psychother Psychosom 32 : 180-190
- 16) 정일성, 황익근(1990) : Alexithymia와 신체화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9 : 1110-1116
- 17) 고경봉(1994) : 정신신체장애,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환자들간의 alexithymia의 비교. 정신신체의학 2 : 59-68
- 18) 이양현, 임효덕, 이종영(1996) :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신경정신의학 35 : 888-896
- 19) 한진희(1993) : Alexithymia의 평가. 정신의학 18 : 77-99
- 20) Durand Y(1971) : Symbolisation et l'imaginire. Etud Phil 3 : 315-323
- 21) Desmer-Desrosiers L(1982) : Influence of alexithymia on symbolic function. Psychother Psychosom 38 : 103-120
- 22) Desmer-Desrosiers LA, Cohen KR, Catchlove RFH, Ramsay RA(1983) : The measure of symbolic function in alexithymic pain 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39 : 65-76
- 23) Cohen KR, Desmer-Desrosiers LA, Catchlove RFH(1983) : The SAT9 : A quantitative scoring system for AT9 test as a measure of symbolic function central to alexithymic presentation. Psychother Psychosom 39 : 77-88
- 24) Cohen KR, Auld F, Desmer-Desrosiers LA, Catchlove RFH(1985) : Alexithymia : The development valid and reliable projective measure(The Objectively Scored Archetypal 9 Test). J Nerv Ment Dis 173 : 621-627
- 25) Rybakowski J, Ziolkowski M, Zasadzka T, Brzezinski R(1988) : High prevalence of alexithymia in male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1 : 133-136
- 26) Taylor GJ(1977) : Alexithymia and countertransference. Psychother Psychosom 28 : 141-147

- 27) Krystal H(1979) : Alexithymia and psychotherapy. Am J Psychother 33 : 17-31
- 28) Hendryx MS, Haviland MG, Gibbons RD, Clark DC (1992) :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to alexithymia assessment among abstinent alcoholics. J Pers Assess 58 : 506-515
- 29) Kauhanen J, Julkunen J, Salonen JT(1992) : Coping with inner feelings and stress(Heavy alcohol use in the context of alexithymia). Behav Med 18 : 12-126
- 30) Fukunishi I, Ichikawa M, Ichikawa T, Matsuzawa K, Fujimura K, Tabe T, Iida Y, Saito S(1992) : Alexithymia and depression in families with alcoholics. Psychopathology 25 : 326-330
- 31) Seltzer ML(1971) : The Michigan Alcohol Screening Test(The quest for a new diagnostic instrument). Am J Psychiatry 127 : 1653-1658
- 32) Sher KJ, Levenson RW(1982) : Risk for alcoholism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stress response-dampening effect of alcohol. J Abnorm Psychol 91 : 350-367
- 33) Haviland MG, Show DG, MacMurray JP, Cumming MA(1988) : Validation of the Toronto Alexithymia Scale with substance abuser. Psychother Psychosom 50 : 81-87
- 34) Kleiger J, Johns N(1980) : Characteristics of alexithymia patients in chronic respiratory illness population. J Nerv Ment Dis 168 : 465-470
- 35) Borens R, Grosse-Schultze E, Jaensch W(1977) : Is "alexithymia" but a social phenomenon? Psychother Psychosom 28 : 193-198
- 36) Pierloot R, Vinck J(1977) : A pragmatic approach to the concept of alexithymia. Psychother Psychosom 28 : 337-342
- 37) Ziolkowski M, Gruss T, Rybakowski JK(1995) : Does alexithymia in male alcoholics constitute a negative factor for maintaining abstinence? Psychother Psychosom 63 : 169-173
- 38) Haviland MG, MacMurray JP, Cummings MA(1988) : The relationship between alexithymia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sample of newly abstinent alcoholic inpatients. Psychother Psychosom 49 : 37-40
- 39) Taylor GJ, Parker JDR, Bagby RM(1990)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alexithymia in men with psychoactive substance dependence. Am J Psychiatry 147 : 1228-1230

A Clinical study on Alexithymia in Alcoholism

Nam-Jin Lee, M.D.,* Ae-Ja Jung, Ph.D.,* Ik-Keun Hwang, M.D.*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ju, Korea

Alexithymia refers to a specific disturbance in psychic functioning characterized by difficulties in the capacity to verbalize affect and to elaborate fantasies. Although it was initially described in the context of psychosomatic illness, alexithymic characteristics may be observed in patients with a wide range of medical and psychiatric disorde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alexithymic characteristics in the patients with alcoholism using Scored Archetypal 9 Test(SAT9) and Toronto Alexithymia Scale-20 Korea version(TAS-20K).

Twenty patients with alcoholism and twenty-four normal controls completed these tes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Patient group with alcoholism were significantly more alexithymic than normal control group in both SAT9 and TAS-20K.
- 2)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lexithymic measures was found between genders of both group.
- 3)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alexithymic measures and age or education level in both group.
- 4) Measures between SAT9 and TAS-20K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in the patient group.

KEY WORDS : Alexithymia · Alcoholism · SAT9 · TAS-20K.

□ 한국판 20항목 Toronto 감정표현불능증 척도(TAS-20K)

- 각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상태와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1=전혀 그렇지 않다. 2=약간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다소 그렇다. 5=아주 그렇다.)

1. 지금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다.
2. 나의 감정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때가 있다.
3. 의사도 이해하기 힘든 뭔가(감각)를 몸에 느끼고 있다.
4. 나의 감정을 남에게 손쉽게 표현할 수 있다.
5. 나는 어떤 문제를 단순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6. 몹시 속이 상했을 때 자신이 슬픈 것인지, 놀란 것인지, 화난 것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7. 자신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져서 당황할 때가 종종 생긴다.
8.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보다는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편이다.
9. 뭐라고 표현해야 할 지 모를 느낌(감정)을 느끼고 있다.
10.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1.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설명해 내기가 어렵다.
1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라고 권한다.
13. 내마음 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14.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다.
15. 다른 사람들의 어떤 느낌보다는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6. 나는 심각한 드라마보다는 가벼운 오락연화를 더 좋아한다.
17. 나의 속마음을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말하기가 어렵다.
18. 서로 아무런 말을 주고 받지 않아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19.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내 감정을 되새겨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
20. 영화나 연극의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진다.